

2019년 2월 13일(수)

183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1 빈 들에 마른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2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3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4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명 주옵소서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삼시다

4 주께서 심판 하실 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삼시다

후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 길로 가지 맙시다

2월 14일(목) 기도 담당 : 송삼범 장로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요한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183장 다 같 이

기 도 송인철 장로

성 경 봉 독 출애굽기 2:11~25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나그네 세월 속에 익어가는 하나님의 때』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25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출애굽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2월 12일(화)	출 1:1~22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2월 13일(수)	출 2:11~25	나그네 세월 속에 익어가는 하나님의 때
2월 14일(목)	출 3:1~12	나 여호와가 보고, 듣고, 알았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2월 13일(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주의 전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상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에 의해 물에 던져지고, 이후에 미움 받아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으로 단련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생각해봅니다. 그 어떤 역경과 난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130여 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섬김, 봉사, 선교,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새성전 입당을 통하여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성전 건축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목회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육부 겨울 행사와 해외 두나미스 터키 팀의 사역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핵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통치의 지혜를 주시고, 나누어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다시 일어나 도약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과 온 가족들을 주의 강한 손과 편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